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8

2007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산명가 · 고린도후서

갈라다아서 · 에베소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8

충현의 만나

2007

가정예배

신명기 ·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 에베소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 ② 25개 교구와 22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 ③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④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삼동 일대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 ⑥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하나되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 ⑦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십자가의 일꾼 되게 하시며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과 충현복지관이 복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시고, 현재 추진중인 양로원, 수양관, 납골시설 및 본당 외벽석재 보수공사가 은혜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십자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창조주의 음성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던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죄 용서와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내려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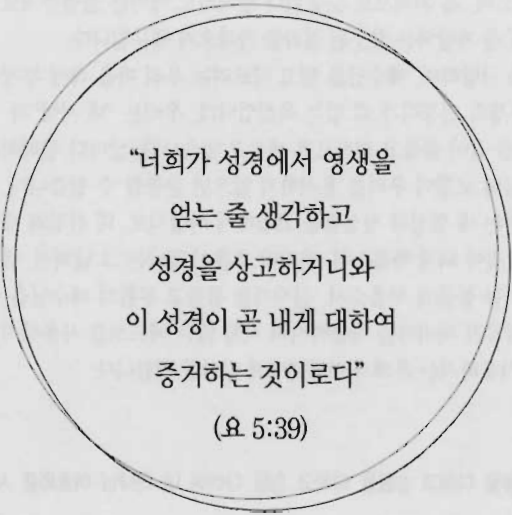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그리스도는 죄의 짐으로 고통하는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총의 길을 막는 모든 자존심과 교만을 버리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추수의 때가 지나기 전에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 126:5)
주님의 눈과 마음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향해 지금 곧 나아갑시다.

2007년 8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매일 성경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권면한 후에, 순종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하고(4~9절), 불순종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킬 것을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20~25절)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구체적으로 일러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경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해 온전한 순종이 있을 수 없으며, 혹 외적으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메마른 율법주의로 치우쳐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우리 마음 속에 투쟁이 있습니다. 이 투쟁의 전쟁터가 죄 있는 육신입니다. 우리는 '내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붙들고 외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려는 내 열심과 성실함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날까지, 내 무의식조차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순종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사용하시며 허물 많은 베드로를 사용하시며 수가 성 여인을 사용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 6:5)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알려 주십니다. 특별히 가나안 거민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과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라는 명령을 강조합니다.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2절) 언뜻 보면 이 명령이 잔인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은 차고 넘치는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게 되면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4절)

“여호와께서 네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16절)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25절)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26절)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들을 반복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죄와 어둠에 물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속죄물로 드리기까지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전부가 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신 7:12)

기도 제목 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25개 교구와 22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충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늘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2절)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14절)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앞으로 그들이 풍부와 번영 속에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을 교훈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3절) 가르쳐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예표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18절)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의 길을 가며 우리를 낮추시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는(2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 순종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자신이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과 더불어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찌니라”(신 8:6)

기도 제목 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②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 받았고 신약시대 이후부터는 은혜로 구원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장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5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으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과거 악행과 패역함을 덧붙여 말합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6절) “너희가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18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악행들과 우리 마음의 온갖 패역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창 8:21)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선행이나 의로움 때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은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신 9:5)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모세는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던 백성들을 보고 의분에 사로잡혀 십계명 돌판에 백성들 앞에서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두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심으로써 그들에 대한 큰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해야 옳은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16절) 이 얼마나 적절한 권고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고 신앙 교육을 잘 받았어도,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결국 완악하고 패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여준 불순종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외적인 행동보다 마음의 할례를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징표였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은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외적인 행동의 변화보다 내적인 마음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입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외적인 징표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엡 4:23,24)입니까?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겸손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신 10:16)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속사함을 항상 말씀으로 정결케 하소서, ② 위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해 주시고 십자가 복음의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당위성을 말하고, 곧이어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당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이르게 했고 거친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많은 자비와 은혜를 보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2~7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결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행한 다음에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복과 저주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순종을 촉구한다면(18절 이하), 우리는 더욱 힘을 얻어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신 11:27)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항상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소서.
② 교회의 중직자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12장부터 2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들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장소에서만 예배하며 우상 숭배자들의 풍습을 배척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가리켜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가나안 땅을 얻은 것처럼 “얻게 하신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9~31절은 모세가 서두에서 언급하던 교훈의 주제를 반복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종교의 우상을 배격하는 단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가나안 우상 숭배자들의 풍습과 그들의 가증스러운 열심조차 모양이라도 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32절)고 합니다.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모세와 같이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천국을 이미 소유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찌니라”(신 12:32)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해서 역삼동 일대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발생할 수 있는 거짓 종교 즉, 이적과 기사를 보 이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을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꿈이나 환상을 이용하여 백성 들을 거짓 종교로 끌어들이므로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3절) 합니다. 모 세는 어떤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 라면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 계시일 뿐이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 님께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10절)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불 쌍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고 하셨습니다.(8~10절) 심지어 한 성읍 전체가 하 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에도 그 성읍 전체를 멸하도록 명하셨습니다.(15,16절)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게 보존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성경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것만 믿고 따라야 합니다. 죄악된 이 세대 속에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 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너는 그를 좇지 말며 듣지 말며 공홀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 지 말고”(신 13:8)

기도 제목 ①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에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선교위원회 헌신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를 말해주며 먼저, 전반부(1,2절)는 신체 자해(自害) 금지 규례를 가르치는데 신체 자해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죽음 앞에서 극도의 슬픔에 사로잡혀 자기 몸을 상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순례 여정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살전 4:13~18) 중반부(3~21절)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한 기준은 사물 자체의 선악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정한 것으로 구별된 것 중에는 위생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별은 먹고 먹지 못하는 기준을 초월한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한 삶을 위한 규정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규례를 통하여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롬 12:1,2)

후반부(22~29절)는 십일조에 관한 규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 분깃이나 기업을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입니다. 오늘날에도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겨 드려지는데 이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의 생계를 유지하고 교회를 관리하며 이웃을 구제하는 등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신 14:22)

기도 제목 ①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양로원, 수양관, 남골 시설 및 본당 외벽석재 보수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두가지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채무 면제의 규례입니다.(1~11절) 즉,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이웃과 형제가 진 빚을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 줄 것(1~6절)과 안식년이 가까워지고 하여 꾸어주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오히려 구제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합니다.(7~11절) 이 말씀은 안식년 만큼은 빚을 독촉하지 말고 채무자로 하여금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뜻입니다. 종의 해방 규례에 대해서는 동족으로서 종이 된 자의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12~18절) 이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결속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15절)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며 절대적인 사랑이기에 십자가의 의미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용솟을 칠 것입니다. 주여!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오늘도 나를 내려 놓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 15:10)

기도 제목 ①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세 가지 큰 절기를 소개하는 것이 이 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첫째로, ‘유월절’입니다.(1~8절)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유월절 어린 양(요 1:29)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로,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칠칠절’입니다.(9~12절) 칠칠절은 유월절이 끝나는 날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에 지키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밀의 첫 추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라는 의미에서 ‘맥추절’ 혹은 ‘초실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현재 풍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한 과거 애굽의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과거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던 때를 생각하며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셋째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모든 곡물을 수확하고 저장한 후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광야의 장막생활에 대한 기념과 1년 간의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일명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킬 때에도 모든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며 감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질을 드려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모습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구별된 헌금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와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찌니라”
(신 16:17)

기도 제목 ①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깊이 각연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종교, 사법, 정치 분야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할 것을 말하며 특별히 2~7절은 우상 숭배자를 엄히 처벌하는 규례를 말해줍니다. 거짓 신앙은 개인이나 공동체에도 매우 치명적이므로 교회는 거짓 신앙이나 이단자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처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며 두 세 사람의 증거가 아니면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6절) 8~13절에서는 재판에서의 공정하고 신중한 판결을 위한 상소 규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판결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이며 판결하는 자에게 권위를 주셔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12절) 14~20절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에 의해 왕정 제도를 도입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와 택하신 자를 세우며, 형제 중의 한 사람으로(15절) 세움을 받은 자로서, 평생에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19절)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말씀하십니다.(20절) 왕정을 요청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믿음의 결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정하신 섭리 가운데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예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셨지만 말구유에 겸손히 누우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네게 가르치리니”(신 17:9)

기도 제목 ①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② 각 교회학교 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증거되고 천국일꾼들이 양성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규례로 전반부(1~8절)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직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와 달리 이들에게는 생업의 기반이 되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이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분깃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십일조와 각종 예물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중앙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각 지파의 성읍에 흩어져 사는 레위인들에게 동등하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간에는 그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후반부(9~22절)는 선지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몇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입니다. 셋째로, 선포한 말씀이 성취되고 증명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입니다. 15절의 선지자라는 말씀은 모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들을 말하나, 궁극적으로는 장차 이 세상에 참 선지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히 여호와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신 18:5)

기도 제목 ① 주님의 사역자들이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더 깊이 전하게 하소서. ② 교회가 추진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개인의 생명과 인권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려고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1~13절)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는 무모한 피 흘림과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사회적 규범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도피처로 제공해 주셨고, 그리로 피하여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계표 제도를 정해 주셨고(14절), 공정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소한 2인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할 것과 위증했을 시에는 위증자로 하여금 상대방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는 재판제도(15~21절)를 정해 주셨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은 완악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나를 위해 쏟으신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원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신 19:4)

기도 제목 ①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으며, 그 쉼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② 위암목사님께서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주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전쟁에 관한 규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거룩한 전쟁임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1~4절) 이어서 전쟁에 참가할 수 없는 사유를 가진 병역 면제자에 관련된 규례(5~9절)를 소개하고, 또한 전쟁 시 무조건 상대국을 침탈하기 전에 우선 화친을 요청해야 한다는 규례(10~15절), 부패한 우상 문화에 오염된 가나안 족속만은 반드시 진멸시켜야 한다는 규례(16~18절), 전쟁 수행시의 기타 행동 규범(19~20절) 등을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수행해야 할 영적 전투의 규범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했으며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을 철저히 진멸하여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방 악습을 뿌리 뽑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사탄과 싸우는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철저히 깨뜨리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죄악된 세상과 우리를 넘어뜨리려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신 20:4)

기도 제목 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대장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 군사로 살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교회에 충고와 훈계의 편지를 썼습니다.(8절) 그런데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놓고 내심 후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자신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지나치게 근심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편지를 읽고 죄를 깨달았으며 근심하던 중에 마침내 참된 회개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9절) 이것과 관련하여 바울은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음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10절)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 주실 때, 죄를 부끄러워하며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근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날마다 있어야 할 근심입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근심이 먼저 있어야 참된 회개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세상 근심’은 단순히 이 세상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근심의 결과는 오직 영원한 사망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에게 주사 참된 회개를 이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후 7:10)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인해 근심하게 하사 날마다 참된 회개를 이루게 하소서. ② 모든 새가족들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마게도냐교회가 환난 중에 있는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이미 시작한 연보 생활을 계속하도록 격려합니다.(1~11절) 마게도냐 교회는 그들 자신도 환난과 극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던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힘에 지나도록”(3절) 헌금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최선을 다해 헌금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물질이 풍성하고 남아돌 때 비로소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게도냐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정반대의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고, 이웃이나 성도들을 물질로 도와야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헌금의 근본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9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요함을 위하여 가난을 자원하여 택 하였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의 부요함을 위하여 우리의 소유를 기꺼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술로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믿음의 실천(마 5:16)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견딜 수 없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린다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후 8:2)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며 살게 하소서. ②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한 여름 계절학교가 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은총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헌금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를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7절) 즉,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하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소유를 선한 일에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물질을 아끼며 인색하게 굴어야 하겠습니까? 헌금은 기부가 아닙니다. 참된 헌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진실한 감사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없이 단순한 의무로 행하는 헌금은 하나님께 열납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모든 소유와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의 일에 감사함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7)

기도 제목 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게 하소서. ② 진실한 십자가의 증인이 곳곳에서 일어나 오로지 복음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헐뜯기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10절)라는 식으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외모만 가지고 근거 없는 비난을 했습니다. 외모만 보는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태도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하고 있으며(1절), 바울의 빈약한 외모와 부족한 언변을 빌미삼아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만든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권을 변호하며 복음 전도자의 참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외모만 보느니라”(7절) 사람들은 외모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많이 배웠고, 돈이 많으며, 명예가 있고,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가 등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들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겸손히 말구유에 누우신 은총의 비밀을 깨닫고 싶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5절)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고후 10:18)

기도 제목 ① 이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분토 같이 여기며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시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 왔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계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1~4절) 또한 육체의 가시(5~10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10장부터 계속되어 온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하고, 후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의 위대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9절)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 계획을 밝히면서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15절)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며 고린도 교인의 신앙을 회복하고 올바른 회개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고린도교인을 향한 모든 참음(12절)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을 닮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시 때문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십자가입니다. 가시가 우리를 찌를때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헤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구원 받았음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로 인해 자신의 연약성을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간직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보혈의 은총을 더 깊이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후 12:10)

기도 제목 ① 사람들의 오해나 비방 때문에 낙심하지 말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열방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공적인 복음전도 사역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찌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고전 9:16)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18절)고 말합니다. 바울은 정말 자신의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자랑하겠다고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신들에 관하여는 헛된 자랑을 하면서도 오히려 바울을 거짓 교사로 몰아세웠기 때문입니다.(12~15절) 이런 현실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불 자기 자신이 참 사도임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성공적인 사역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했는지 그 숫자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오직 한가지였으니, 곧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당한 온갖 괴로움과 고통이었습니다.(23~33절) 바울이 오직 이것만을 자랑한 까닭은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참된 일꾼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음의 참된 일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자신이 복음의 참 일꾼인지를 점검해 보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는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땐대 나의 악한 것을 자랑하리라”(고후 11:30)

기도 제목 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게 하소서. ② 예배위원회에 세움받은 모든 일꾼들이 예배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한 경고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할 때 결코 용서하지 아니할 것임”을 경고하고(1~4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신이 진정한 사도인지 의심하며 그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하지만, 성도라 칭하면서도 다투고 싸우며 음란과 더러움에 사로잡힌 그들이야말로 스스로 진정한 성도인지 살피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합니다.(5~10절) 진정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비난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들의 믿음이 온전한 상태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 과연 자신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에 있는지를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습니다.(4절) 우리도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여 확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더 깊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서의 결론 부분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찌어다, 서로 문안하라(11절)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이러한 믿음의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고후 13:8)

기도 제목 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편지의 서두를 시작하는 인사와(1~5절), 인사 후에 바울은 곧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비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질책합니다.(5~10절) 그는 복음의 유일, 절대성을 밝힘으로써 다른 복음을 좇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행위가 복음에 대한 배교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어 회심 과정과 사도로 활약하기까지의 초기 행적이 고백조로 서술되고 있는데(11~24절),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과 복음의 권위를 변증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기의 이전에 행한 일을 말함으로써 율법주의자들의 허구성을 지적합니다.

갈라디아교회를 어지럽게 하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공격하고자 그의 사도직의 기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그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됨에 대한 의심과 공격을 받습니다. 그 때 그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고 합니다.(15절) 사도 바울이 만난 십자가의 이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감정에 의한 부르심이 아님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1절) 부르심에 순종하며, 다른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기(6~9절) 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갈 1:7)

기도 제목 ①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소서. ②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 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바울의 사도권과 이신칭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사도로서의 바울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교회에서 바울의 중심되는 증거, 곧 이신칭의의 교리가 인정되었다는 것은 바울의 사도직이 인정되고 있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루살렘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공식적으로 인정(1~10절),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 그의 율법적인 외식 행위를 책망(11~14절),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진리가 강조(15~2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죄 있는 우리의 육신에 내려진 유죄선고이며,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내가…”라고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절대적인 완전한 행복에 기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전부이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우리 마음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계시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는 신비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기도 제목 ① 복음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 시작 15분 전에 참석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갈라디아교회는 율법주의자(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율법의 행위(할례 등 구약의 의식)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이 장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 갈라디아교회에 대한 책망(1~5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6~14절),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관계(15~23절), 믿음과 율법의 관계(24~29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11절) 구약의 많은 의식을 포함해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행한다 할지라도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입니다.(롬 7:12) 그러나 인간의 죄가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하기보다는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려 애쓰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오직 그분의 은혜만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 3:26)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소서. ②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을 통해서 십자가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정체와 한계를 분명히 깨닫도록 촉구합니다. 이 장은 상속자의 비유(1~7절), 갈라디아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8~20절) 그리고 두 아들 비유(21~3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속자의 비유에서 후견인은 율법을 의미하고 장성한 후의 상속자는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즉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장성하면 그는 후견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두 아들 비유는 약속의 언약으로 난 이삭과 계집종(하갈)의 몸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비교하면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낼 뿐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자유와 기쁨이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요 8:31,32) 성령 안에서의 자유는 율법의 어떤 조항을 지킴으로써 사람들이 얻는 양심의 만족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자유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할 때 나는 없어지며 십자가가 더 크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나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4:7)

기도 제목 ①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주소서. ② 학습 · 세례자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심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율법을 아래 있지 않게 되며,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필연적으로 맺히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유익(1~6절),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질(13~15절) 그리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16~2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과 원수 된 인간의 부패성과 죄악성, 즉 죄악 된 본성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좇아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22,23절)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신자의 삶을 통해 맺혀 집니다. 우리의 의지, 노력, 열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좇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좇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는 은총의 자녀가 되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 5:16)

기도 제목 ① 성령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에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갈라디아서를 결론짓습니다. 당시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길로 제시하면서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은 십자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단순히 핍박을 면하려고 할례를 억지로 받는다고 질책합니다. 또한 할례만 받고 여타 율법 조항은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어떠한 종교적 행위도 인간을 구원시킬 수 없으며 자랑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거듭난) 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장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생활(1~10절), 바울의 자랑(11~16절) 그리고 바울의 부탁과 축원(17,18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다른 것을 첨가하며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으며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8절)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믿음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14절) 우리 몸에 간직한 예수의 흔적입니다. (17절) 우리가 만난 십자가의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② 봉사위원회에 속한 자원봉사부원들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문안 인사(1,2절)와 함께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3~14절) 먼저, 성부 하나님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선택하고 그들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보혈로써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와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하심으로 인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무한하신 영광을 찬양케 하는 것입니다.(6,12,14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알아야 할 신앙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18절) 우리는 정결한 양심과 순결한 믿음의 생활을 지켜 나가면서(요일 3:3)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능력의 크심을 깨닫는 것입니다.(19절) 능력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죄인 됨과 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과 영생에 이르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큰 역사와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고후 12:9)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20~23절)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5)

기도 제목 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전반부(1~10절)는 구원받기 이전에 죄악 가운데 거하던 과거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누리는 현재의 삶을 대조함으로,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만을 기다리는 소망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된 것이기에 우리의 의를 내세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장의 후반부(11~22절)에는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새언약의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사(20절)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16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18절)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의 복음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잣대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 2:22)

기도 제목 ①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가 맡겨진 사역을 서로 협력하며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우리는 교회의 숭고한 사명에 대한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이방인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려는 바울의 사명의식은 교회의 모범이 됩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성숙한 삶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단순히 위로를 받거나 인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기쁨의 찬송가로 채우며 자신의 삶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있는 삶이 되도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영원부터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교회를 통해 알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항상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중도의 길을 걸으며 감추인 자, 은휘한 자로 숨어 있기 보다는 담대하고 당당히 나아감을 얻으십시오. (12절) 먼저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며, 더 나아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함께 가기 원하는 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엡 3:10)

기도 제목 ① 교회와 사명을 위해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②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교재

8월 구역교재 초점

십자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십자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은 지금도 온 세상을 향하여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이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 니 지금이 기회입니다! 추수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들이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믿음과 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 갑시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0803	출 6:2~9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참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자
0810	렘 8:18~22	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자존심과 교만을 버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0817	엡 4:11,12	영적 지도자들은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아갈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하자
0824	시 126:5,6	우리의 선교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울며 씨를 뿌리고 추수하자

1. 구역 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 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 초점 |

참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자

| 찬송 |

찬송가 30장 여호와 하나님

찬송가 416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 본문 | 출애굽기 6:2~9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
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
고... ㉕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㉖모세가 이와 같이 이
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흑독
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바로 직전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출 6:2,3 /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_____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_____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 37:5

시 37:7

※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 내며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 때 그분이 우리를 무거운 짐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알게 됩니다.

출 6:6 /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라 내가 □□□□
사람의 무거운 □□ 밑에서 너희를 빼어 내며 …

주님은 우리에게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짐을 알고 계시고 모든 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 130:1,2 / 여호와여 _____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_____

히 5:7 / 그는 _____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_____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 때 그분이 우리를 속박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알게 됩니다.

출 6:6 / … 그 □□□□에서 □□□□를 건지며 …

속박은 종된 상태 또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의해 지배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에서 풀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신 26:8

행 2:21

큰 재앙에서 너희를 구속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 때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십니다!

출 6:6 / ... 편 ☐과 큰 ☐으로 너희를 ☐하여

벧전 1:18,19 /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된 것은 ☐이나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 없고 ☐ 없는 어린 양 같은 ☐의 보배로운 ☐로 한 것이니라

우리를 구속한 것은 돈이나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속하였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 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출 6:7 / 너희로 _____ 나는 _____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_____
너희가 알찌라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밤낮으로 인도해 주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십니다.

신 4:39

너희를 인도하고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 때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 6:8 /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을 삼게 하리라 나는 □□로라 하셨다 하라

렘전 1:4 /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미래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짐과 속박을 제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죄로부터의 자유와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또한 놀라운 미래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 11:28

히 4:16

※ 지금 자신을 지배하며 속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답이십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하소서.
2.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2과 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 초점 |

자존심과 교만을 버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 찬송 |

찬송가 334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송가 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 본문 | 예레미야 8:18~22

¹⁸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¹⁹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케 하였는고 하시니 ²⁰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²¹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²²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쩔 인고

우리는 울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봅니다. 그는 택함 받은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울고 있습니다.

렘 8:18

예레미야는 구원의 문제 때문에 애통해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받지 못했기에 그의 마음 속에 깊은 슬픔과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소위 그리스도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십자가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부, 행복, 성공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십일조를 바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순간에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아무에게도 보장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지금은 추수가 끝나가는 때

우리는 추수가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렘 8:20 / □□할 때가 지나고 □□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을 얻지 못
한다 하는도다

오늘날 교회에서 좋은 열매, 진정한 신자, 참된 회개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더
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
니다.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질병이나 사고, 죽음이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 12:1

지금은 추수가 끝나가는 때입니다. 지금은 운명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참으로 중대한 시간입니다. 추수 때가 우리 곁을 그냥 지나가도
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추수하는 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야 합니다.

렘 8:21 / _____ 나도 _____
놀라움에 잡혔도다

지금은 구원의 때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고후 6:2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롬 3:10)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롬 3:22 / 곧 _____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_____

롬 5:8 / 우리가 _____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_____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름이 끝나면 더 이상 성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추수기가 지나면 때는 이미 늦고 맙니다.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십니다.

롬 10:9 / 네가 만일 네 ☐으로 예수를 주로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에 믿으면 ☐을 얻으리니

지금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추수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지금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렘 8:22 / 길르앗에는 □□이 있지 아니한가 그 곳에는 □□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를 받지 못함은 어찌인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도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존심은 십자가를 무시하며 자기 자신의 길을 따라가게 합니다. 우리 자신의 권위가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마 16:24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좇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추수가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오직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마 25:12,13 / 대답하여 가로되 _____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_____ 너희는 _____ 알지 못하느니라

십자가로 路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얼굴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지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혼란, 재난, 절망, 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마 9:36,37 /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 없는 ☐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할 것은 많되 ☐ ☐은 적으니

요 1:12 / ☐☐하는 자 곧 그 ☐☐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자신의 자존심과 교만을 모두 버리고 그리스도의 품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주님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 간절한 기도 |

1. 모든 성도들이 추수의 때가 지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소서
2. 자존심과 교만을 모두 버리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3.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3과 영적 지도자들은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 초 점 |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갈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하자

| 찬 송 |

찬송가 371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찬송가 370장 어둔 밤 쉬 되리니

| 본 문 | 에베소서 4:11,12

¹¹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¹²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일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다른 은사들을 나눠주십니다. 이 은사들은 주님의 교회가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님은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엡 4:11 / 그가 혹은 □□로, 혹은 □□□로, 혹은 □□ 전하는 자로, 혹은 □□와 □□로 주셨으니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는 영적 지도자들이 너무나 희박합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들이 미치는 놀라운 영향력은 역사책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진정한 일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전도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 6:5 /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_____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오늘날의 교회에서 초대 교회에서와 같이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 바울, 막달라 마리아, 요한, 스테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히 13:18 / _____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의 천국일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보다는 의사, 변호사, 정치가, 사업가가 되기를 더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마 6:33

딤후 1:8

우리에게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많은 일꾼들이 그들이 해야 할 의무의 참 뜻을 잃어버렸습니
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무시하는 현실이 되었습
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영적 지도자들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살전 5:25 / 형제들아 _____

골 4:3 / 또한 _____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_____ 내가 이것을 인
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영적 지도자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우리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롬 13:1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적 지도자들을 보내주실 때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주시는 축복들을 놓치거나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벧전 5:5 /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하고 다 서로 □□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한 자를 대적하시되 □□한 자들에게는 □□를 주시느니라

히 13:17 /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하고 □□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중에 누가 영적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까? 누가 영적 지도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기도모임과 심방일정, 전화사역을 해 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진정으로 영적 지도자들을 원한다면 그들을 맞을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섬겨야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잘 섬기며 돌보아야 합니다.

막 10:45

우리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필요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영적 지도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꾼들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그들에 대한 합당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딤후 5:18 / 성경에 일렀으되 _____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_____ 하였느니라

※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십자가로 路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기꺼이 헌신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에 영적 지도자들을 주셨습니다.

마 16:18 /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 위에 내 □□를 세우리니 □□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엡 4:12 / 이는 성도를 □□케 하며 □□의 일을 하게 하며 □□□□의 □을 세우려 하심이라

※ 주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 교회의 일꾼들을 키워야 합니다.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 간절한 기도 |

1. 총현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하게 하소서.
2. 총현의 모든 젊은이들이 복음을 깨닫고 천국일꾼으로 헌신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맞을 준비를 하며 섬기게 하소서.

4과 우리의 선교는?

| 초점 |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울며 씨를 뿌리고 추수하자

| 찬송 |

찬송가 260장 새벽부터 우리

찬송가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 본문 | 시편 126:5,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㉞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
고 돌아오리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교회를 운영하고, 예산을 충당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과 같은 일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인기 있는 교회의 교인수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 1:8

우리는 세상 끝까지 나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을 따라 모든 족속과 열방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 28:19,20 / 그러므로 너희는 _____ 아버지
와 아들과 성령의 _____ 내가 너희에게 분부
한 모든 것을 _____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 자신이 진정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가라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가는 것입니다.

막 16:15

가만히 앉아서 말만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가는 것보다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쉽습니다. 가는 것보다 누군가를 보내고 불평, 불만하는 것이 쉽습니다.

요 12:24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_____ 죽으면 _____

그 누구도 희생하거나 맘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선교사들은 성령 안에서 걸어갑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올라라

가는 자들은 올라야 합니다.

시 126:5 / □□을 흘리며 □□를 뿌리는 자는 □□으로 거두리로다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오직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우는 자들만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영혼에 대한 지대한 관심,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롬 9:1~3 /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이 있는 것과 □□에 그치지 않는 □□이 있는 것을 내 □□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을 위하여 내 자 신이 □□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찌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울며 아파했고 예수님처럼 다른 영혼들을 향한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아들을 사랑하여 예수님께 나아와 울며 간청한 아버지 마음입니까?

눅 9:38

씨를 뿌려라

울면서 나아가는 자들은 씨를 뿌리고 와야 합니다.

시 126:6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뿌리고 외야 합니다. 돈이나, 자신의 능력 같은 다른 씨를 뿌리고 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좋은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복음만 뿌리고, 성령의 능력만 의지해야 합니다.

거두어라

울면서 가서 씨를 뿌린 후에는 수확이 뒤따라야 합니다.

요 4:35 / 너희가 낙달이 지나야 _____ 하지 아니하
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_____

마 9:37 /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_____

씨를 뿌리는 것과 수확하는 것은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두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수확이란 신자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일꾼들이 울며 씨를 뿌린 후에 거두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 오랜 동안의 기다림과 눈물의 기도 후에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
던 일과 그 때의 기쁨과 감격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는 영혼을 얻는 사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교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상명령을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눅 15:7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나가 회개하면 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눅 19:10 / 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려 함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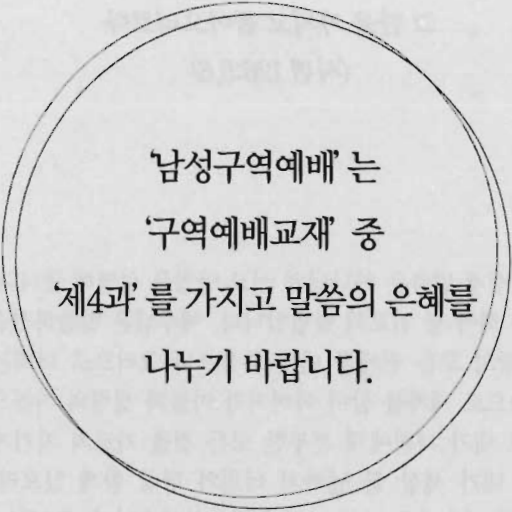
※ 성령께서 지금 자신에게 가서, 울며, 씨를 뿌리고,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한 영혼도 다른 자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일어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 울며,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추수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총현교회의 선교가 되게 하소서
2.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은혜를 주소서
3.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모든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4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는?

⁽⁵⁾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⁶⁾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5,6)

오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선교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교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8~20)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이 성경 말씀들은 우리에게 선교의 모든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교회를 운영하고, 예산을 충당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과 같이 덜 중요한 일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기 있는 교회의 교인수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끝까지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가라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것에 대해 얘기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가는 것보다 선교위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가는 것보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 더 쉽습니다. 가는 것보다 누군가를 보내는 것이 더 쉽습니다. 가는 것보다 불평, 불만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 어떤 부서의 일원이 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누구도 희생하거나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선교사들은 성령 안에서 걸어갑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올어나

가는 자들은 올어야 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오직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우는 자들만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선교지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지대한 관심, 그것이 바로 선교사가 갖추어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바울은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찌라도 원하는 바로라”(롬 9:1~3) 바울은 힘 있게 전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지 않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품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울며 아파했고 예수님처럼 다른 영혼들을 향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가슴으로 우셨습니다.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와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눅 9:38)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울면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씨를 뿌려라

울면서 나아가는 자들은 귀중한 씨를 뿌리고 와야 합니다. 울면서 가서 돈이나, 자신의 위대한 능력 같은 다른 씨를 뿌리고 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씨만을 뿌리고 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씨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11은 말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파종하는 자가 뿌리는 씨는 여러 장소에 떨어질 것입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먹어버리거나, 혹은 돌짜밭에 떨어져 햇볕에 말라 없어지거나, 때로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져 기운이 막혀 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은 좋은 땅에 떨어져 많은 결실을 맺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마 13:3~23)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마다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씨를 좋은 장소에 뿌릴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

음만이 좋은 결실을 맺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복음만 뿌리고, 성령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두어라

울면서 가서 씨를 뿌린 후에는 반드시 수확이 뒤따라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주님의 종들이 울면서 가서 씨를 뿌리고 나서는 거두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수확 역시 선교 사역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며 많은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확이란 신자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거두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야 합니다. 한 영혼도 다른 자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수확하는 것은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36~41은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찌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32은 또한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선교의 원칙으로 돌아갑시다. 영혼을 얻는 사역으로 돌아갑시다. 이 좁은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재와 미래에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이제 일어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 울며,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7년 8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양재웅 유재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